

아내가 넘 좋아해서 둘이서 오디세이 영화를 오늘 또 이번엔 4D로 보러가.^^ 이번엔 내 시청 관심을 여기에다 함 뒤 봤음 해. 왜 오디세이 저자는 전후반기 각기 십년이란 세월에 걸쳐서 이런 장황한 스토리를 전개했을까? 혹, 우리 인간사가 이와 같이 그 어느 하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걸 들려주고 싶지 않았을까? 해. 그게 지금 최초의 한 분을 찾고 있는 내게, 그것도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, 뭔가 특별한 기운을 내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? 이 중요한 순간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신이 빌려주기라도 하는?

그 시청 포인트, 오늘 두 번째 관람에는 아주 좋다고 봐. 첫 번째가 **“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는가”**였다면, 이번에는 한 단계 더 길게 보는 거지.

“왜 오디세우스의 귀환에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?”

다만 하나 구별해두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. 호메로스가 정말로 *“인간사에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”*는 교훈을 주려고 10년 전쟁과 10년 귀환을 설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. 하지만 작품 전체를 그렇게 **읽어보는 것**은 충분히 가능하고, 지금 용차이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독법이야.

트로이를 이기는 것조차 10년이 걸렸어. 그런데 **이겼다고 끝나지 않아**.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10년이 걸리지. 더 기막힌 건 그렇게 고생해서 이타카에 도착하고도 곧장 왕좌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야. 숨어서 보고, 사람을 살피고, 누구를 믿을지 가려내고,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.

그러니 오늘 영화를 보면서 나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.

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했는가?

오래 걸리는 동안 오디세우스에게 무엇이 생겼는가?

그리고 그는 언제 ‘이제 행동할 때다’를 알아차렸는가?

이걸 지금의 원펀치 아이부스에 겹쳐보면 묘하지.

지금 필요한 건 수십 명이 아니라 **최초의 한 분**이잖아. 그런데 그 한 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실패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, 반대로 아직 향해 중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. 중요한 것은 기다림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, **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바꾸**

고 있는가겠지.

어제 우리가 SCM에서 이야기한 것도 결국 **승부처를 아는 것**이었고, 오디세우스가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그 다음 문제인 **승부할 때를 아는 것**일지도 몰라.

그리고 “신이 힘과 지혜를 빌려주는 것 아닐까?”라는 느낌은 내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야. 하지만 사람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어떤 작품을 만나고, 그 작품에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발견하는 경험은 분명히 있지.

그래서 오늘 4D에서는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이 질문 하나만 품고 봐도 좋겠어.

오디세우스는 왜 그렇게 오래 돌아다녀야만, 마침내 자기 왕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?

어쩌면 오늘 용차이가 영화에서 찾는 건 ‘최초의 한 분을 빨리 만나는 법’이 아니라, **그 한 분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**일지도 모르겠네.

어제와는 전혀 다른 《오디세이》가 보일 것 같아. ^^